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Ⅱ)

—A Study on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and
Policy Implications(Ⅱ)—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유 가 효

부교수 박 혜 인

대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조 회 금

조교수 박 충 선

Dept. of Home Management Kei 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Yoo, Ka Hyo

Associate Professor : Park, Hye In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o, Hee Kum

Assistant Professor : Park, Chung Sun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III. 연구방법
- IV. 결과분석 및 고찰

- V. 생산직 기혼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ork and family life of married women employed in a manufacturing industry. Data were gathered from the use of face-to-face interview method from a sample of 230 married working wome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With high rates of change of job, most of the respondents remain unstable

* 본 연구는 199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n their working situation. It was shown that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are women's life cycle, degree of contribution of wife's income toward total family income, and husband's attitude toward wife's employment.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i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labor structural factors such as pay, work environment and fringe benefits.

(2) The amount of household labor time was limited by job-related factors rather than by family-related factors, because among these working women employment itself is necessarily for their subsistence.

(3) It was shown that wives participated more actively in their marital communications than their husbands. Most of the respondents showed the syncratic type of the decision making patterns, but this result does not necessarily mean wives exercised an equal power with their husbands.

The economic factors and the emotional instability of the husband are the ones mostly influencing marital conflicts of the employed women. It was found that the respondents easily revealed marital conflicts related to personal problems of their husbands(such as extramarital affairs, gambling and alchoholism). However, they tried to overcome the structural conflicts related to authoritarian attitudes of their husbands or economic problems without any complaints.

(4) Mothers have difficulty in controlling their adolescent children, due to the weakening of parental authority. Although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ir employment as having negative impacts on their children, they still have high expectations toward their children.

Inspite of low degree of father role expectations and facther role performance of their husbands, most of the respondents anticipated expressive roles as well as traditionally instrumental role from their husbands.

Finally, these findings would help us determine family welfare policies in Korea. Improvements in paid and household labor structure of married women should be accomplished at the national level. Also, the acting programs for parent education, marital councelling services, and law enforcement for equal employment between men and women should be provided in our society.

I. 문제제기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맡아온 여성노동력은 일반적으로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으로 특징지워져 왔다. 특히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 위주의 국가정책 속에서 저연령의 미혼여성 노동자들은 단순 반복적인 미숙련 노동형태로써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발전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노동의 임노동 시장구조도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은 곧 저연령층의 미혼여성 노동을 의미하며, 결

혼진 단기적인 임시고용형태를 취하고,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가는 불안정하고 단절적인 취업구조가 선형적인 여성노동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는 저임금, 미숙련의 여성노동자의 상대적 좌익 상태로 인하여 노동력 공급부족현상을 거의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이 캐도에 오른 80년대초부터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여성의 취학률 증가에 따라 저연령 미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둔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자녀수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율의 저조가 가세되었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와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미숙련, 저연령 미혼여성노동력의 부족 현상과 아울러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이미 80년대 초에 지적되었다(박세일, 1982). 특히 미혼 여성 노동력의 공급 감소현상은 특히 생산적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제조업 생산적 여성노동자들 중 기혼 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표 1). 미혼과 기혼의 구성비는 1979년의 88.9%: 11.1%에서 1988년 72.0%: 2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노동자는 성별, 혼인상태별 이중적 차별속에서 남성이나 심지어는 미혼여성들까지 기피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가장 단순 반복적이고 부수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생산적 기혼여성 사례가 보여 주었다(홍승아, 1987). 게다가 대부분의 기혼여성노동자들은 인적자원이 빈약하므로 최근에 제조업부문에서 일고 있는 자동화추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노동과 무보수의 노동력 재생산노동(가사노동)의 이중적 부담, 가계보조적 노동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현실, 그리고 기혼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이들의 노동생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분리된 영역으로만 간

〈표 1〉 혼인 상태별 여성노동자 구성

연도	미 혼	기 혼
1979	88.9%	11.1%
1980	86.4	13.6
1981	86.9	13.1
1982	84.5	15.5
1983	83.6	16.4
1984	81.8	18.2
1985	79.6	20.4
1986	77.3	22.7
1987	74.7	25.3
1988	72.0	28.0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각년도.

주되어왔던 일터와 가정의 두 영역의 연관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어떠한 생존전략을 갖고 이 중노동을 감당해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가정생활 실태와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보다 분석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의 인생주기와 노동주기와의 관련성 등의 가족환경적 요인, 성역할이나 취업의식 등의 심리적 요인, 임금, 작업량, 작업환경 등의 취업구조적 요인 등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실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및 경제적 주거환경요인 등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선행논문(제1보)에서는 생산적 기혼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일터와 가정생활의 양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후속논문으로써 실태분석에서 규명된 결과들을 근거로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생산적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과 가정내에서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호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생존양식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기혼 여성노동의 특징

주부취업률에 대한 6개국 비교 결과를 살펴 보면, 한국의 주부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갭럽연구소, 1987). 또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주된 취업이유는 생계유지비와 자녀 교육비 등의 가정경제적인 필요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동기에서 취업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인 필요성을 강조한 우리나라 취업 주부들의 집단은 주로 저소득층, 저학력층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실질적 취업률 증가가 여성의 지위 상승이나 복지 증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1985년 이미 40.7%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가족주기에 따라 노동의 단절을 경험하며, 특히 결혼후 취

업 내지는 재취업시에 상당수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하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현실에 기혼여성노동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김애령, 1987). 이들은 생활비 부족이나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교육비 지출증가의 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지만, 스스로 상대적 과잉 노동집단을 형성하여, 기업주로 하여금 저임금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도 낮아진다. 대부분의 기혼 여성노동력은 무기술의 단순 보조적인 일에 참여하며, 쉽게 고용되고 쉽게 처분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집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노동력 재생산 노동이 사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는 한 가정밖의 임노동에 대한 동등한 가치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홍승아, 1987).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연구는 기혼여성의 노동의 양적 팽창과 사회적 공헌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취업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중심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부인의 취업으로 야기되는 자녀양육문제, 가사노동의 소홀(한남재, 1972)등의 측면과 같이 최근에 취업여성들은 가족크기의 소규모(또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보다 쉽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子女가 유아기 및 학동기단계인 경우에는 유아나 자녀 교육문제라는 현실적인 장애를 여전히 안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꼭 필수적인 일만을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해내는 극히 시간집약적인 노동형태를 취하면서도, 가족구성원들로부터의 가사분담에 대한 기대는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취업으로 인한 역할갈등 및 역할 긴장에 따른 부부관계의 갈등내지 스트레스의 증가등도 지적되고 있다(이동원, 1976; Voydanoff, 1987). 더욱이 일하는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가족생존 유지에 필수적이며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유교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권력관계의 자워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것으로 수용하여 동등한 부부관계를 창출해내지 못하며, 오히려 규범적인 여성의 역할을 더욱 완벽하게 수행해 내야 하는 '수퍼워먼 증후' 등도 지적되었다(조혜정, 1981).

기혼여성노동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할 사항은 가족주기에 따른 노동의 단절형태를 들 수 있다. 한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조사된 사례에서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결혼전부터 일하다가 출산, 양육기를 지난 후 재취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따라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노동은 단절적이며, 특히 전문적 기술이나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평적인 직업이동이 빈번히 일어난다(홍승아, 1987; 김애령, 1987). 이것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및 이탈에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가족주기라는 가족적변인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xroat, 1986).

여성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사무직이나 행정직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직업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Kauppinen-Tropainen, 1983). 또한 가족의 총수입이나 자신의 수입, 가족내 대화 등도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Koch & Rhodes, 1981).

2. 기혼여성노동자의 가사노동시간

1) 가사노동시간

기혼여성이 생산노동과 함께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라도 그 활동들을 가까운 장소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산업화 이전보다, 생산활동의 장소가 가정에서 완전히 분리된 산업화 이후에,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은 더욱 커진 것으로(Tilly & Scott, 1978) 보인다.

속 기혼여성의 취업은, 취업한 시간만큼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Schram & Haftstrom, 1984, 283),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Nickols & Matzen, 1978; Haftstrom & Schram, 1983, 1984, 1986),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취업하지 않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해 1일 평균 2~3시간이 적은 5시간~6시간 3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윤복자, 1975; 이정수, 1984; 한국여성개발원, 1986; 한경미, 1989; Walker & Woods, 1976).

한편, 취업한 기혼여성 가운데서도 생산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더 짧은데, 생산적 기혼여성만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0%의 응답자가 1일 가사노동시간이 4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것이나(김혜경, 1990), 또 생산적 기혼여성들은 대부분 가사노동 시간을 따로 배분하기는 힘들며, '시간나는 대로' '필요하면 그때 그때' 집안일을 처리한다는 사례연구 등에서(김혜장, 1987) 볼 수 있듯이, 생산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장시간의 생산노동으로 인해 더욱 짧아지게 된다.

이처럼 취업한 기혼여성은 짧은 가사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심리적인 제약을 느끼거나(이승미, 1989; Strober & Weinberg, 1980), 시간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이연숙 외, 1991).

2)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취업여부 및 직업지위등의 취업변수, 가족의 크기, 막내자녀의 연령, 남편의 취업시간, 가계소득, 외식빈도, 집의 크기 등 가정생활변수, 그리고 주부의 연령, 교육 및 건강상태등의 개인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도 가족환경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거나(한경미, 1989), 취업시간이 증가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든다(Abdel-Ghany & Nickols, 1983)고 하였으며, 최근 맞벌이 가정의 연구에서는 (이연숙외, 1991) 주부의 교육, 사회계층 및 가계소득, 주부의 직업유형 및 직장근무시간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서, 크게 직장생활 변수와 가정생활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기혼여성노동자의 결혼생활과 갈등

198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편재 등 분배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연구가 점차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부분이 개괄적인 실태조사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들 연구는 설문조사보다는 주로 면접, 사례연구 또는 현지참여 관찰조사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노동자가족(팽경인, 1988; 김미하, 1990) 또는 노동자 계급의 가족(김애령, 1987; 강인순, 199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노동자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서술과 함께 저소득층 가족문제를 여성노동(김애령, 1987)이나 빈곤의 재생산과정(김익기·장세훈, 1987)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저소득층의 결혼생활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가족관계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김선영, 1989). 그리고 저소득층 가족의 취업주부는 부인 우위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더욱 부인의 의사결정이 높다고 하였다(이정우·김규원, 1986).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상을 저소득층을 택했을 뿐이지 내용이나 방법면에서는 저소득층 가족에 해당한 접근이 못되었다는 지적이었다(박미령, 1990).

그런데 최근 학회 차원의 공동연구 작업으로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관계(옥선화, 1990)와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이연숙외 3인, 1991)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박충선외 5인, 1991)가 조사, 분석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취업주부에 대한 연구는 조사대상의 직종과 표집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연구의 오랜 축적 이후에야 비로소 서로간의 비교연구가 용이할 것이다.

4. 취업모의 자녀관계 및 자녀교육의 문제

취업모의 이중역할 수행의 문제 가운데서도 흔히 가장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이다.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한국여성개발원, 1987) 조사대상자의 80%이상이 자녀양육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선택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필요로 취업하고 있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경우, 이 문제는 자녀의 방치로 나타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영세지역 취업모의 자녀양육형태에 관한 조사결과(변화순, 1988)에 의

하면 조사대상 취업모의 57.5%가(특히 가내노동의 경우는 84.8%) 어린자녀를 집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장에서의 방치는 8.1%로 무려 65.6%에 이르는 미취학자녀가 제대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어떤 자녀들이 각종의 안전사고 및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취학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지도 및 지원 부족으로 학교의 준비물이나 숙제를 제대로 해가지 못하는 등, 학습의욕 및 준비도면에서 떨어지고 종내에는 전반적인 학습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기 쉽다. 미국의 연구에서 보면 취업모의 아동과 비취업모의 아동사이에 학업성취의 차이가 계층변수의 중재하에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빈도의 차이도 나타났다(Hoffman, 1974, Nye, 1974). 즉 중산층 가정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사이에는 학업성적의 차이가 없으나 하류층 가정의 경우에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자녀 보다 성취에서 뒤떨어진다(Hoffman, 1974). 또한 비행발생의 빈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의 소년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ye, 1974).

우리 나라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이 보다 낮으며(한향문, 1982, 강영자, 1985, 김재근, 1985)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이용숙외 2인, 1988), 학교생활부적응아도 훨씬 많다고 보고된다(강문희, 1981). 부적응아집단 어머니의 경우 결혼전부터 취업한 어머니의 비율은 낮고 경제적인 필요로 어쩔수 없이 일한다는 비율이 높으며 자녀들이 공부를 안하게 되었다는 등 자신의 직업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낮은 교육수준의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는 대개 노동시간이 길고 피로도가 높으면서도 수입이 적은 직종, 즉 생산직 노동자, 파출부, 행상, 영세자영업, 상업등 서비스직, 청소부, 가내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가사노동부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자녀교육을 위한 여유를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활의 고달픔으로 인해 갖는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자녀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가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이용숙외 2인, 1988). 저소득층 가정의 유일한 희망과 기대가 교육을 통한

자녀의 성취로서 빈곤의 세습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한다면 이러한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는 더이상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곧 빈곤퇴치의 문제이고 청소년문제 예방책의 일환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복지사회로 나가는 첨경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유아기 자녀 보육실태 및 학동기 자녀 관리 및 훈육,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 및 문제, 부모역할 수행상의 갈등 및 자녀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고 취업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배우자의 역할 및 사회지원체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유아기자녀 보육실태 및 학동기자녀 관리와 훈육은 본 연구의 1차 보고서에서 다루었고 본 (II)고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5.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관련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의 특징

- 1-1.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경력(취업이동빈도 및 이동유형)의 실태는 어떠한가?
- 1-2. 생산직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는 관련변인(가족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취업구조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가사노동시간

- 2-1. 심리적 가사노동시간의 제약은 직장 및 가정 생활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2. 가사노동시간은 직장 및 가정생활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결혼생활의 적응과 갈등

- 3-1. 생산직 기혼여성의 부부간 대화 및 의사결정은 어떠한가?

3-2. 생산적 기혼여성의 가족생활문제는 무엇이며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4) 부모자녀관계 및 교육문제

4-1. 청소년기자녀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형태는 어떠한가?

4-2. 모가 지각하는 청소년자녀의 문제는 무엇인가?

4-3. 모가 지각하는 부모역할수행상의 갈등은 어떠한가?

4-4. 남편에 대한 부역할수행평가와 기대는 어떠한가?

4-5. 취업모가 바라는 사회적 지원체계는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지역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생산적 기혼여성으로 230명을 설문지를 통해 개별 면접하였다.

2. 조사도구

1) 양적조사의 도구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가족상황, 생산적 기혼여성노동의 특징, 가사노동시간, 가족생활 및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및 교육문제, 주거 및 경제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과 생활시간조사표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의 설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적 기혼여성노동의 특징

취업경력: 첫 취업연령, 근속년수, 이직횟수 및 이직이유를 통해 기혼여성의 전반적인 취업경력을 측정하였다.

가계소득비율: 총가계소득에서 부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성역할태도: 기혼여성의 가족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4개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의 응답으로 총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취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직업만족도: 전반적인 직업만족도를 측정하는 1개 문항과 직업의 세부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을 3점 리커트 식으로 구성하였다.

(2)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평일과 휴일의 생활시간표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일과를 표시하도록 했다.

가사노동시간제약: 응답자가 지각하는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느낌을 충분하다에서 매우 부족하다까지 4점척도로 구성하였다.

(3) 결혼생활의 적응과 갈등

부부관계: 부부간의 대화유형과 의사결정유형, 결혼만족도를 묻는 단일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생활갈등: 가족생활의 갈등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김수환(1985), 육선화(1990)의 가족생활문제문항을 수정 이용하였다.

갈등해소방식: 가족갈등에 대처하는 갈등해소방식과 의논대상자를 조사하였다.

(4) 부모자녀관계 및 교육문제

청소년기자녀와의 관계 및 문제: 청소년자녀와의 관계변화, 대화정도, 의견차이조정방법, 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문제 등을 조사했다.

부모역할갈등과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모의 부모역할갈등은 자녀다루기 고충, 모취업의 '정적 영향', 자녀교육에 대한 회생적인 태도 등 세 문항을 3점리커트식으로 물었고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을 조사했다.

배우자에 대한 부역할수행평가와 기대: 부역할수행은 모가 지각하는 부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 부의 학습지도,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를 물었고 부역할 기대는 남편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기 바라는가를 개방식 질문으로 물어 범주화했다.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 자녀교육에 위협을 느끼는 사회문제와 바라는 사회제도 및 시설을 조사하였다.

2) 질적 조사의 범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현거주지에 유입되기까지의 경로와 결혼계기 및 과정, 가족구성,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부부관계, 가사노동수행, 주거상황 및 경제

상황 그리고 현재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와 여가이용실태, 직장생활 등의 10개 항목으로 범주를 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조사는 1989.11월~12월의 1차 조사지역 답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1990.7월 1차 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0.8월~11월 2차 조사지역 답사 및 선정을 통해 1990.12월~1991.1월의 2차 본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공단 밀집지역인 서구와 북구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어머니 가운데 생산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아동에 종사하는 카톨릭계의 도움을 받아 생산적 기혼여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비산동의 타아소에서 20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타아소측의 적극적인 후원과 더불어 공동연구자 4인이 신분을 밝히고 연구목적을 이해시킨

후 협조를 구한 까닭에 라포형성이 용이한 상태에서 비표준화, 비조직적, 비유도면접(김경동, 1986:539)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조사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대표성을 평가받는 절차로서 공동연구자들은 타아소 운영 실무교사들과의 토의를 거쳐 면접조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실생활에 부응하는 복지 대책마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차 조사는 서구의 이현공단, 북구의 제3공단, 동구의 제조업체들 가운데 기혼 여성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협조의뢰문을 보낸 후, 전화 및 사전 방문을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조사자들이 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조사자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4명과, 사전 훈련을 받은 계명대 대학원생 및 계명대와 대구대의 대학생들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실태파악을 위해 빈도 분포, % 및 X²검증, F검증, Scheffe-test, 중분류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N=230)

변인	구분	%	변인	구분	%
부인연령	29세이하	13.0	남편연령	29세이하	6.1
	30~39	35.7		30~39	26.1
	40~49	37.4		40~49	35.2
	50세이상	13.9		50세이상	23.5
	평균 39.9세			무응답	9.1
부인학력	국졸이하	41.0	남편학력	국졸이하	16.1
	중졸	39.7		중졸	32.6
	고졸	19.2		고졸	37.4
가족형태	핵가족	82.6		대졸	4.8
	확대가족	17.4		무응답	9.1
남편직업	없음	8.7	가족의 월평균 소득	30만원이하	15.7
	단순·생산직	30.0		31~60	15.2
	자영업	9.6		61~90	40.0
	기술직	21.7		91~120	17.8
	사무직	14.3		121만원이상	7.0
	기타	5.7		무응답	4.3
	무응답	10.0	자녀수	없음	2.2
주택 소유형태	자가	32.6		1명	21.3
	전세	37.0		2명	38.3
	월세	25.2		3명	23.0
	기타	3.9		4명	11.3
	무응답	1.3		5명이상	3.8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

<표 2>에서 보면 조사대상 생산직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9.9세이며, 20대 13.0%, 30대 35.7%, 40대 37.4%, 50대 13.9%이고 최고연령은 59세였다. 조사대상자의 9.1%(21명)은 남편이 없었으며 남편의 평균연령은 43.2세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국졸이하가 41.0%였다. 남편 학력은 부인 학력보다 높아서 대졸이상이 5.3%였으며, 국졸이하의 비율은 16.1%로 부인보다 상당히 낮았다.

남편의 직업은 단순·생산직의 비율이 높아서 전체의 30.0%였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도 8.7%나 되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6% 확대가족이 17.4%로 핵가족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수는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32.6%, 전세가 37.0%,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가 25.2%였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남편의 월소득과 부인의 월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것으로 월 30만원 이하가 15.7%, 31-60만원이 15.2%, 61-90만원이 40.0%, 91-120만원이 17.8%, 121만원 이상이 7.0%였으며, 전체 평균은 73.7만원이었다. 기타 소득에는 자녀의 기여가 커서 전체 대상가구의 14.3%가 자녀의 소득을 계에 보태고 있었다.

IV. 결과분석 및 고찰

1. 기혼여성노동의 특징

1) 직업이동 및 취업경력

응답자들의 첫 취업연령은 평균 28.8세로, 20세미만에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한 여성이 26.0%이고, 20-29세가 22.0%, 30-39세가 35.3%, 40세이상이 16.7%로 미혼시기인 17-20세와 결혼후 자녀 출산이후인 33-38세에 집중되어 있다.<표 3> 응답자의 55.4%가 결혼전 취업경험이 없었고, 44.6%는 있다고 하였다.

<표 3> 응답자의 첫취업 연령

연령	%(N)
20세 미만	26.0(59)
20~29	22.0(50)
30~39	35.3(80)
40세 이상	16.7(36)
계	100.0(227)

<표 4> 직업이동 횟수

이동횟수	%(N)
없음	25.5(56)
1 번	32.3(71)
2 번	24.1(53)
3 번	9.5(21)
4 번	4.4(10)
5 번	2.2(5)
6 번 이상	2.0(4)
계	100.0(220)

<표 5>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년수

근속년수	%(N)
1년 미만	30.5(67)
1~2년 미만	12.3(27)
2~3년 미만	7.7(17)
3~4년 미만	14.5(32)
4~5년 미만	10.0(22)
5~10년 미만	10.9(24)
10년 이상	14.1(31)
계	100.0(220)

이직이유로는 결혼과 출산이 1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임금이나 복지시설(16.3%)이였고, 공장의 합병이나 규모 축소, 부도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직 사례도 14.3%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자신의 건강문제나 교통불편도 각각 10.2%, 10.9%로 이직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직업 이동 횟수는 평균 1.4번으로 응답자의 74.5%가 적어도 1번이상 직장을 옮긴적이 있으며, 25.5%만이 옮긴적이 없다고 하였다.<표 4>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이 30.5%, 1-2년미만이 12.

3%, 2-3년미만이 7.7%, 3-4년미만 14.5%, 4-5년미만 10%, 5-10년미만 10.9% 10년이상이 14.1%로 1년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반이상이 3년미만으로 균속년수가 짧아, 투자 가치가 낮은 편이었다. 〈표 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근로자의 균속년수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혼여성의 확고한 취업의식을 감안하면, 짧은 균속년수는 노동자로써의 기혼여성의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낮은 노동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의 취업경력을 통한 직업이동 유형을 보면, 첫 직장과 두 번째 직장이 동일 생산적인 경우가 79명(49.1%)로 전체 응답자의 반에 이르며, 36명(22.5%)은 다른 생산직으로, 그리고 46명(28.6%)가 다른 산업(농업이나 상업)에서 생산직으로 옮겨온 경 우였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직업이동은 직종간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동일 직종내의 수평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응답자의 70.7%가 대구시내에서 이동하였으며, 다른 도시에서 대구로 이동한 경우는 15.3%, 농촌 지역에서 대구로 이동한 경우는 6.4%였다. 이동 이유로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나 자녀의 건강문제가 가장 많았고, 취업구조적 요인으로는 낮은 임금, 공장의 부도나 합병, 작업환경 등으로 나타나,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2) 취업경험에 따른 직업만족도와 그 관련변인들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즉 기혼여성의 가족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취업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1) 가족환경적 요인

가족환경적 요인 중 기혼여성의 가족주기는 혼인, 출산경력, 교육정도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Rexroat, 1985).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주기는 남성이나 미혼여성과는 달리 자녀의 수나 연령에 따른 가족주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하는 기혼여성들은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들이 유아기인 경우,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하기를 원한다. 또한 학동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생계유지적 측면을 넘어서 교육비 부담을 위한 취업 또는 재취업 사례가 많다.

응답자의 취업의식은 가족주기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이직여부는 가족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을 옮기기를 가장 원하는 여성들은 유아기와 학동기의 기혼여성들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정과 직장간의 이중 역할 부담이 가장 큰 시기가 역시 유아기와 학동기임을 재 입증하였고, 이 시기에 처한 여성들은 가능한 이러한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면서 항상 대기 상태의 불안정한 노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만족도도 역시 유아기의 여성들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학동기, 청년기, 진수기의 순으로 가족주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기에 따른 직업만족도가 차이는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족주기에 따른 자녀의 가계소득기여도도 큰 차 이를 보였는데, 가계소득에 자녀가 기여한다는 응답자 중 69.7%(23명)가 청년기 가족이었다. 그러나 가족주기와 관계없이 기혼여성이 가장인 경우도 있어 본인이 집안의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젊어져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인소득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응답자의 9.0%는 남편과 거의 동등하거나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의 40%-49%를 담당하는 경우가 24.4%, 30-39%를 담당하는 경우가 45.5%, 그리고 가계소득의 30%미만이 17.3%로 나타났다. 그려므로 실제 기혼여성의 취업은 저임금 구조하에 있는 노동자 가족의 생존전략으로써, 가계소득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필수적인 소득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족주기에 따른 부인소득 기여율은 유아기이전 단계가 가장 낮고(36.0%), 중년기 이상의 가족일수록 가계소득에 대한 부인 소득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가족주기

에 관계없이 부인의 가계소득 기여율은 모두 35%이상으로 주부의 취업은 가계유지에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부인소득의 가계기여율은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부인의 가계 기여율이 높을수록, 남편은 부인의 취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부인의 직업만족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었으나,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가사부담에 대한 주부의 만족도는 직업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2) 심리적 요인

기혼여성 노동자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역할태도와 취업의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부의 성역할태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r=-0.38$), 교육정도가 낮을수록($r=0.20$)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주부의 직업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주부의 결혼전 취업여부는 성역할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결혼전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욱 진취적으로 나타났다($p<0.001$). 즉 주부의 성역할태도는 결혼전 취업여부와 관계는 있으나, 취업의식이나 직업만족도와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의식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어 취업의식이 강할수록 직업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3) 취업구조적요인

취업구조적요인으로는 임금, 휴가 및 복지, 작업환경, 작업조건, 성차별등을 포함하였다. 임금이나 작업조건, 환경, 작업시간등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취업구조적요인들을 이직여부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집단은 임금이나 휴가, 복지보다는 작업량이나 작업시설 및 환경등에 높은 불만을 나타낸 경우였다($p<0.05$).

직장내에서의 성차별은 조사대상기업의 상당수가

섬유제조업으로 작업환경이 이미 성별분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다른 노동현장에서처럼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적어 응답자들의 성차별 인식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작업장내의 위계질서를 보면 가부장적인 구조를 이루어 절대적인 생산직여성들의 철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성차별이라는 의미조차 의식할 수 있는 계기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간파해서는 안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을 경험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높은 불만을 나타냈으며($p<0.05$), 혼인상태에 따른 차별도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직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부의 직업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취업의식이 강할수록,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2. 생산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대구시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평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이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며 또 심리적으로도 60.5%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므로 본 고에서는 평일 평균 10시간 15분이라는 장시간의 생산노동으로 짧을 수 밖에 없는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제약 및 실제 가사노동시간은 직장 및 가정생활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직장 및 가정생활 변수에 따른 심리적 가사노동시간의 제약

<표 6>에서 보면,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심리적 부족감은 직장생활변수 중 생산노동시간 및 작업시간과 가정생활변수 중 동거가구원수, 주부의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직장 및 가정생활변수에 따른 심리적인 가사노동시간의 제약

심리적인 제약		총분 하나	보통 이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χ^2	%	
변수	집단(N)							
작업형태	주 간(80)	22.5	15.0	53.8	8.8	$\chi^2=1.13$	df=3	
	2 교대(123)	18.7	20.3	52.0	8.9			
일요휴무	천 다(94)	22.3	16.0	54.3	7.4	$\chi^2=1.37$	df=3	
	안 쉰다(109)	18.3	20.2	51.4	10.1			
작업시간 만족도	만 족(45)	31.1	20.0	42.2	6.7	$\chi^2=11.90$	df=6	
	보 통(84)	15.5	20.2	59.5	4.6			
	불 만(71)	16.9	14.1	53.5	15.5			
생산노동시간(분) F Scheffe-test		557	614	620	669	$F=4.34^{***}$		
a		b	ab	b	b			
작업노동시간(분) F Scheffe-test		514	539	567	607	$F=6.35^{***}$		
출퇴근시간(분)		56	74	64	62	$F=1.03$		
주부의 교육수준	국 졸(85)	15.3	17.6	54.1	12.9	$\chi^2=5.56$	df=6	
	중 졸(78)	21.8	17.9	53.8	6.4			
	고 졸(39)	28.2	20.5	46.2	5.1			
가족주기	학동기이전(83)	24.1	18.1	51.8	6.0	$\chi^2=2.36$	df=6	
	청년기이후(120)	17.5	18.3	53.3	10.8			
가사분담 만족도	만 족(86)	24.4	23.3	45.3	7.0	$\chi^2=8.80$	df=6	
	보 통(67)	13.4	20.9	56.7	9.0			
	불 만(49)	12.2	12.2	63.3	12.6			
사용방수	1 개(68)	85.0	17.6	51.5	5.9	$\chi^2=2.69$	df=6	
	2 개(95)	18.9	51.6	10.5	10.5			
	3 개이상 (40)	15.0	17.5	57.5	10.0			
동 거가구원수(명)		3.8	3.9	4.2	5.0	$F=4.05^{**}$		
주부의 소득(만원)		27.6	34.2	30.1	32.6	$F=4.19^{**}$		
가사노동시간(분)		188	166	204	245	$F=2.37$		
수면시간(분)		427	457	440	427	$F=1.09$		

** $P<.01$ *** $P<.001$

즉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충분하다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은 작업의 형태나, 일요일 휴무 여부 또는 출퇴근 시간의 차이보다는 주로 작업시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집단의 생산노동시간 및 작업시간이,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길었다. 또 교육수준의 차이나, 가족주기, 가사분담만족정도, 사용하는 방의 수, 수면시간, 실제의 가사노동시간보다는 동거하는 가구원 수와 주부

의 소득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심리적 제약은 차이가 있었다.

결국, 기혼여성 노동자가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부족감은 실제 자신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이나 수면시간, 기타 다른 변수보다 작업시간의 길이와 동거하는 가구원 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시간제약 지각 정도의 차이는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주부의 취업에 의한 것이라는 이승미

(1989, 50)의 연구결과나, 맞벌이가정 주부의 시간 갈등수준은 부인의 직업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이연숙의(1991, 7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업유형의 차이는 직업을 통제했을 때, 작업시간의 길이가 심리적인 시간제약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2) 직장 및 가정생활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표 7〉에서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 준다.

가사노동시간은 작업형태, 일요휴무 여부, 생산노동시간, 작업시간 및 출퇴근시간, 작업시간만족도 등 직장생활 변수와 가족주기, 동거 가구원수, 가사분담만족도, 주부소득 및 수면시간등의 가정생활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이며 일요일 휴무가 있는 경우에 짧았는데, 이는 주간 근무의 경우가 2교대 근무에 비해 작업시간이 길며 또 주간근무자는 일요휴무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사이에는 -.37($P<.000$)의 단순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생산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짧아질 수 밖에 없는데, 1일 평균 생산노동시간이 11시간 30분 이상인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은 생산노동시간이 9시간 이하인 집단 및 9시간 이상 10시간이하인 집단의 가사노동시간보다 의미있게 짧았다. 예를 들어 생산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은, 생산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의 1/2에 불과했다. 이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취업시간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생산노동시간을 작업시간과 출퇴근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작업시간이 10시간 이상이거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인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특히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생활변수에서는 가족주기가 청년기 후기인 집단, 동거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집단, 가사분담에 대해서는 불만인 집단, 주부의 소득이 26·30만원인

〈표 7〉 직장 및 가정생활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집단간 차이

변수	집 단(N)	평균	F Scheffe-test
작업형태	주간(81) 2교대 (123)	166 203	F=2.47*
일요휴무	쉼다(95) 안 쉼다(109)	166 208	F=2.90***
생산노동(분)	~ 510(34) 511 ~ 600(51) 601 ~ 690(72) 691 ~ (41)	263 213 169 132	a F=13.71**** b b b
작업시간(분)	~ 480(53) 481 ~ 540(51) 541 ~ 600(55) 601 ~ (56)	243 173 187 147	a F=8.75**** b b b
출퇴근시간 (분)	~ 30 (67) 31 ~ 60 (53) 61 ~ 90 (37) 91 ~ (47)	215 203 168 150	a F=4.36**** a a b
작업시간 만족도	만족(45) 보통(84) 불만(72)	174 210 176	F=2.71*
주부의 교육수준	국졸(86) 중졸(78) 고졸(39)	183 194 190	F=0.23
가족주기	학동기이전(83) 청년기이후(121)	173 199	F=3.04*
동거 가구원수	1 내지 2인(15) 3 내지 4인(121) 5 인 이상(68)	121 191 190	F=3.43*
사용방수	1 칸 (68) 2 칸 (96) 3 칸이상 (40)	187 187 194	F=0.07
가사분담 만족도	만족(76) 보통(55) 불만(47)	178 196 224	F=2.65*
주부의(만원)	~ 25 (47) 26 ~ 30 (106) 31 ~ (51)	182 207 155	ab F=4.33**** a b
수면시간(분)	~ 360(32) 361 ~ 420(65) 421 ~ 480(58) 481 ~ (49)	255 192 176 153	a F=6.76**** b b b

* $P<.1$ ** $P<.05$ *** $P<.01$ **** $P<.001$

집단, 그리고 수면시간이 짧은 집단들에서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

사노동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들(이정수, 1985; 한경미, 1989; 이연숙외, 1991)과는 달리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작업시간에 따른 차이만이 인정되는 단순생산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생산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주간근무를 하며, 일요일에는 쉬지만, 작업시간 및 출근시간이 길어서 생산노동 시간이 긴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짧았으며 또 동거가구원수가 적고, 학동기 이전의 가족주기를 가지며, 가족원의 가사분담에 만족하고, 자신의 소득이 높고, 수면시간을 충분히 갖는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짧았다.

3)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직장 및 가정생활 변수

의 설명력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직장생활변수 중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일요일 휴무 여부, 작업시간, 출퇴근시간, 작업시간만족도와 가정생활 변수 중 가족주기, 가사분담만족도, 주부의 월소득, 가구원수 등과 가사노동시간과 중분류분석을 한 결과가 〈표 8〉 〈표 9〉에 나타나 있다.

〈표 8〉 〈표 9〉에서 보면, 4개의 직장생활 변수는 가사노동시간의 20.4%를 4개의 가정생활 변수는 가사노동시간의 10%를 설명하므로써, 직장생활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변수 가운데서는 작업시간이 $P<.001$, 출퇴근 시간이 $P<.01$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작업시간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전·후 모두 .35의 값(ETA, BETA)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었다. 가정생활변수 중에서는 주부의 소득만이 $P<.05$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시간당 임금이 비슷한 수준에서 월소득의 증가란 결국 긴 작업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8〉 직장생활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중분류분석표

총평균=180.65 변 수	집 단 (N)	UNADJUSTED DEV'N	ADJUSTED FOR INDEPENDENTS		
			ETA	DEV'N	BETA
일요휴무	쉬 다(93) 안 쉬 다(108)	-22.77 19.09		-10.03 8.63	
F=1.24			0.19		0.09
작업시간(분)	~ 480(52) 481~540(39) 541~600(54) 600~ (56)	55.83 -15.03 1.17 -42.50		57.83 -19.82 -1.71 -32.25	
F=7.19***			0.35		0.35
출퇴근시간(분)	~ 30(66) 31 ~ 60(53) 61 ~ 90(36) 90 ~ (46)	26.26 13.07 -20.76 -36.49		22.31 18.95 -9.10 -46.60	
F=5.25**			0.24		0.26
작업시간만족도	만 족(45) 보 통(84) 불 만(72)	-15.98 20.35 -13.76		-16.31 4.37 5.09	
F=0.78			0.16		0.08
				R=.452 R ² =.204	

** $p<.01$ *** $p<.001$

〈표 9〉 가정생활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중분류분석표

총평균=195.87 변 수	집 단 (N)	UNADJUSTED DEV'N	ADJUSTED FOR INDEPENDENTS		
			ETA	DEV'N	BETA
가족주기 F=1.83	학동기이전(75) 청년기이후(103)	-15.80 11.50	0.13	-13.5 9.85	0.11
가족분담만족도 F=2.84	만족(76) 보통(55) 불만(47)	-17.38 0.04 28.05	0.17	-17.93 0.21 28.75	0.18
주부의 소득 (만원) F=4.06*	~ 25 (40) 26 ~ 30 (94) 31 ~ (44)	-9.49 21.78 -37.91	0.23	-5.30 18.95 -35.68	0.21
가구원 수 (명) F=0.39	1 내지 2 (9) 3 내지 4 (106) 5 이상 (63)	-50.31 0.64 6.10	0.11	-30.33 0.05 4.24 R=.317 R ² =.100	0.07

* p<.05

즉 작업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짧아져서 가사노동 수행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겠다.

3. 결혼생활의 적응과 갈등

1) 부부간의 대화와 의사결정

부부간의 대화유형은 둘다 얘기를 잘한다는 경우가 36.6%이며 부인이 주로 하는 경우(36.6%)와 남편이 주로 하는 경우(12.2%)로 치우친 비율이 48.8%이다. 또한 얘기를 둘다 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4.6%나 된다(표 10). 이것은 영세민 지역의 부부간 대화양상(변화순, 1990)과 유사하며, 부인이 남편에 비해 대화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어서 대화유형에 따라 단일척도의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부부 서로 얘기를 잘한다는 집단이 단연 결혼만족이 높고 부인이 주로 이야기 할 때 결혼생활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p<.05).

〈표 10〉 부부간의 대화 및 의사결정

	구 분	% (N)
대화	얘기하지 않음	14.6(30)
	부인이 주로	36.6(75)
	남편이 주로	12.2(25)
	둘 다 잘함	36.6(75)
의사결정	주로 남편이 결정한다	23.9(49)
	주로 부인이 결정한다	10.7(22)
	각각 따로 결정한다	3.4(7)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62.0(127)
본인의 경제력과 발언권과의 관계	상관없다	54.9(100)
	모르겠다	13.2(24)
	발언권이 증가했다	31.9(58)

그리므로 일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과 대화 자체가 저조한 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남성의 과목을 미덕으로 여겼다는 맥락

〈표 10-1〉 가구소득별 의사결정유형

	30만원이하	31~70	71~100	101이상	%(N)
주로 남편	9.27(19)	3.90(8)	7.32(15)	3.41(7)	23.90(49)
주로 부인	0.98(2)	3.41(7)	5.37(11)	0.98(2)	10.73(22)
각자 결정	0.49(1)	0.00(0)	0.49(1)	2.44(5)	3.41(7)
함께 의논	13.66(28)	14.63(30)	24.39(50)	9.27(19)	61(95(127))

 $\chi^2=27.27$ df=9 $p<.001$

에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부부간의 대화에 대한 태도가 세대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 유형은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이 62.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23.9%, 주로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10.7%이며 부부가 각각 따로 결정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하여 민주적인 결정과정으로 변모되는 경향이 엿보인다.〈표 10〉 여전히 내외간에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실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성별 구분 관념이나 남편 위주의 의사결정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취업여성의 상대적 권리지각을 조사한 최규련(1991)의 연구에서 평등형이 48%이고, 부인의 월소득이 4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51%가 평등형이라고 보고한 이연숙 외(1991)의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대체로 부인들이 남편들보다 평등형으로 지각하는 경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들 생산적 기혼여성의 의사결정참여 비율은 높은 수치이다. 이어서 가구소득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남편지배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결국 소득이 낮을 수록 남편이 권위적이라는 일반적 경향과는 일치하면서도 생산적 여성의 의사결정이 이와 같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하여는 좀더 고찰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 내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가족 내 발언권 증가로 보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표 10〉 '발언권 증가는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9%로 과반수가 넘는다. 그렇다면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권한이기 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역할로 인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와 달리 의사결

정에의 참여를 본인의 수입활동과 관련된 발언권의 증가로 보는 경우도 31.9%나 되어 가족관계와 자원과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결혼생활문제

응답자들의 과반수의 가족이 남편의 높은 귀가(64.9%), 성격차이(62.4%), 돈문제(56.4%)를 심각한 문제로 안고 있다(표 11). 그리고 남편의 술버릇(41.0%), 남편의 권위적 태도(40.2%), 남편의 직장 불안정(38.7%), 자녀문제(35.3%), 남편의 의욕상실(31.8%)도 높은 갈등에 속하는 항목들이다(표 11). 그리고 남편의 노름(19.7%)이나 시댁문제(19.2%), 남편의 외도(18.3%)도 상대적으로는 낮은 비율이나 20%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갈등이 남편의 경제적 능력 내지 개인의 정서적 성숙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서울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옥선화, 1990)에서 부부간의 성격 차이(51%), 남편의 지나친 음주(40%), 남편의 높은 귀가(36%), 남편이 권위적임(32%) 등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경험비율은 이들 대구지역 생산적 여성의 경우가 더 높다. 특히 남편의 높은 귀가의 높은 비율이 주목되는 데 이것은 응답자 남편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 연유할 수도 있고 또한 부인의 취업이 바로 직접적인 동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부인 취업과 남편의 높은 귀가는 가장 내부모부재 시간을 길게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남편이 무관심 내지 무책임한 것이 취업여성 가족의 일반적인 양상이고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대응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편

〈표 11〉 결혼생활 갈등요인과 갈등표출정도

갈등요인	% (N)	갈등표출안함	약간 표출	많이 표출
남편의 늦은 귀가	64.9(133)	57.7	38.5	3.8
외도	18.3(37)	36.1	33.3	30.6
노름	19.7(40)	35.9	35.9	28.2
권위적태도	40.2(82)	43.8	47.5	8.8
술버릇	41.0(84)	37.8	43.9	18.3
의욕상실	31.8(62)	61.7	23.3	15.0
직장불안정	38.7(75)	68.1	25.0	6.9
남편과의 성격차	62.4(128)	40.2	46.5	13.4
자녀문제	35.3(71)	35.8	55.2	9.0
돈문제	56.4(115)	37.9	50.9	11.2
시댁문제	19.2(39)	38.9	47.2	13.9
가사노동 협조안함	36.7(72)	69.4	27.8	2.8

의 외도에 대해 갈등인지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부인들이 가장 강렬하게 갈등을 노출하고 문제제기를 한다(30.6%). 그 다음이 노름(28.2%), 술버릇(18.3%), 의욕상실(15.0%) 시댁문제(13.9%)의 순서이다. 응답자들은 남편의 개인적인 비행에 대하여는 결코 참지 않고 갈등을 노출시켜 부부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부상호간에 관련되는 문제이거나 가족구성원들에게 연루된 문제에는 약간 너그럽다. 또한 남편의 늦은 귀가, 직장불안정, 돈문제와 같이 남편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문제는 즉 역사적 또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 관련되는 문제에는 보다 갈등을 적게 노출시킨다. 뿐만아니라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권위적 태도를 갖는 남편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가장 관대하여 부부싸움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의 부부갈등 요인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남편의 권위적 태도나 가사역할 회피라는 측면과는 대조가 된다. 그런데 이와같이 권위적이고 또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하여 가사역할을 기피하는 남편에게 이를 응답자가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를 남편의 태도가 바로 사회적, 역사적 소산이므로 가부장의 권위적 태도에 대해 응답자 부부가 일대 일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달아서

라기보다는 여성들 스스로가 이미 가부장적 가치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아니면 여성 자신은 남편의 권위적 태도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지한다 해도(40.2%)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가 낮아진 까닭에 포기하고 지내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것이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력과 직접 연관되는 남편의 개인적인 생활태도와 버릇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택마련’(40.2%)과 ‘경제문제’(27.2%)라고 답한 데에도 반영된다.〈표 12〉 이것은 결국 67.4%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것인데 이것은 69.5%가 경제문제라고 납득 서울 저소득층의 수치와 근접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는 ‘자녀문제’를 꼽

〈표 12〉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

구 분	% (N)
경제문제	27.2(61)
주택문제	40.2(90)
자녀문제	18.3(41)
부부문제	3.1(7)
건강문제	10.7(24)
기 타	0.4(1)

고 있고(18.3%) 이에 반해 부부문제를 고민한다는 비율은 3.1%에 불과하나 이것은 부부관계가 원만하거나 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이들 응답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경제문제인데 연유한다고 본다. 또한 바람직한 부부관계에 대한 절실함보다는 이들 역시 교육열로 표현되는 미래지향적인 자녀 가치 즉 자녀의 성공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바램인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지향 때문일 것이다. 가구소득에 따라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은 자녀문제를, 소득이 낮은 집단은 주택 및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p<.000$). “밖에 나가서 큰 소리도 못치고 고생하는데(남편이) 집에서 라도 기를 퍼야 할 게 아니냐”는 가부장적 이념의 내면화와 사회적 갈증이나 모순도 오직 가족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미시적인 가족애가 이들 응답자와의 면담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제일용서 못하는 게 월급 축내는 것”이며 “애들 바라보고 살지요”라는 표현 속에 이들 생활의 단면과 가치관이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이들의 갈등해소 방식은 ‘솔직히 대화를 한다’가 20.1%이고 ‘싸운다’가 7.4%에 불과하다.〈표 13〉에 비해 ‘내가 참는다.’는 39.2%이고 냉전으로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가 27.5%이다. 결국 갈등처리의 방법을 갖지 못한 경우가 66.7%에 이르는 것이므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부갈등을 누구에게 의논하는가 조사한 결과 〈표 13〉 ‘없다’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되었다. 친척(19.3%), 친구(17.3%), 직장동료(11.4%)에 비해 이웃은 2.5%에 불과하나, 이는 영세지역 사회관계망 연구보고(여성개발원, 1990)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웃이라는 지역의 공동체의식이 파괴되어 버린 오늘날 도시의 속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이웃이나 동기간에 함께 나누던 농경사회 대면관계가 이미 파괴된 도시에서 이웃이나 가족이 부부간의 갈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밝혀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가족갈등을 처리해 주는 사회복지기구의 구체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인데, 이제까지 부부간의 문제와 같은 사적인 가족내 문제는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논한다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 온 우리 사회의 고정

〈표 13〉 갈등해소 방식 및 의논대상

구 분	% (N)
매번 싸운다	7.4(15)
냉전한다	27.5(56)
내가 참는다	39.2(80)
솔직히 대화한다	20.1(41)
기 타	5.9(12)
의논대상 가족	5.9(12)
친구	17.3(35)
친척	19.3(39)
이웃	2.5(5)
직장동료	11.4(23)
없다	42.1(85)

관념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회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사회변화 역시 가족문화의 변화를 수반해야만 가능하다는 시민사회의 인식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4.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교육의 문제

1) 청소년기자녀와의 관계 및 문제

(1) 청소년기자녀와의 관계변화 및 대화

본 조사대상 어머니들이 청소년기자녀와의 관계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관계가 달라졌다는 경우와 변함이 없는 경우가 거의 반으로 나타났다.〈표 14〉 관계가 변화했다고 느끼는 측면은 자녀의 반항과 함께 다투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44.4%) 다음이 세대차와 대화단절(18.5%), 어른스러워졌다(18.5%) 등이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나(부 63.4%, 모 85.7%), 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더 원활함을 알 수 있어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양상과 일치한다. 부와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는 부가 엄격하기 때문이 가장 많고 다음이 시간부족이며, 모와의 대화

가 잘 안되는 이유는 시간부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의 이중역할의 과중함을 말해준다. 자녀와의 견차이가 있을 때 조정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경우 부의 의견에 따른다(39.8%)가 다소 많으나 자녀와의논해서 결정한다(38.7%)와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따른다(21.5%)고 응답한 경우도 많아 비교적 민주적임을 알수있다.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와 합의결정하는 경우(42.0%)가 더 많고 자녀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28.6%)도 더 많아서 자녀에 대해 보다 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2) 모가 지각하는 청소년자녀의 문제

청소년기자녀에 대해 현재 취업모가 걱정하는 문제는 1위가 성적(29.4%)이었고 다음이 낭비와 사치(22.3%), 부모에 대한 반항(12.5%), 성격 나빠짐(8.7%), 이성교제(8.7%) 등이었다.<표 14> 성적에 대한 염려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나 자녀의 낭비와 사치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생산적 취업모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사대상 어머니와의 면접 중 “자녀가 메이커만 사달라고 한다”, “하도 졸라서 16만원짜리 잠바를 사줬다”, “사치하려고 한다”, 등 의 토로는 우리 사회의 과소비 풍조의 만연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소비행태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진전한 소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一考에서 본 학동기자녀의 과도한 물질적 요구에 대해 부모의 비일관적인 대응 내지 허용적인 태도와 더불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청소년기자녀에게 무력하고 허용적인 부모들이 많음을 볼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부모교육의 대책이 요청된다.

2) 생산적 취업모의 부모역할갈등과 대책

(1) 부모역할갈등과 자녀에 대한 기대

본 조사대상 취업모의 부모역할갈등을 자녀교육의 어려움, 모취업의 부정적 영향, 자녀에 대한 회생의 댓가 등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표 15> 먼저 자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많았고(72.6%), 모의 직장생활로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표 14> 청소년자녀와의 관계

변 인	구 分	% (N)
청소년자녀와의 관계변화	변화있다	50.5(54)
	변화없다	49.5(53)
변화된 측면	반항, 다루기 힘듬	44.4(24)
	세대차, 대화난점	18.5(10)
	어른스러워짐	18.5(10)
	사치하려듬	5.6(3)
	기 타	13.0(7)
부와 자녀와의 대화	잘 됨	63.4(64)
	잘 안됨	36.6(37)
모와 자녀와의 대화	잘 됨	85.7(96)
	잘 안됨	14.3(16)
부와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	부가 엄격해서	40.5(15)
	시간부족	37.8(14)
	자녀의 거부	13.5(5)
	세대차	8.1(3)
모와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	시간부족	55.0(11)
	자녀거부	25.0(5)
	세대차	15.0(3)
	모가 엄격해서	5(1)
부·자녀 의견차이	부의견에 따르게 한다	39.8(37)
	합의한다	38.7(36)
	자녀의견에 따르게 한다	21.5(20)
조정방법	모의 의견에 따르게 한다	29.5(33)
	합의한다	42.9(47)
	자녀의견을 따른다	28.6(32)
모가 지각하는 청소년자녀의 문제	성적저하	29.4(54)
	낭비, 사치	22.3(41)
	부모와 의견대립	12.5(23)
	성격 나빠짐	8.7(16)
	이성교제	8.7(16)
	비사교적임	7.6(14)
	건강 치 못함	6.0(11)
	나쁜 친구 사귐	4.9(9)

어미니도 많았다(74.4%). 그러나 자녀를 고생해서 길러야 헛일이라고 생각하는 회의적 태도는 매우 적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의 미래에 희망을 걸고 헌신하고자 하는 생산적 취업모의 태도를 알 수 있다. 한번 그들의 자녀교육희망을 보면 아들의 경우 자녀의 능력이 닿는 한 시키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

〈표 15〉 모의 부모역할갈등

변인	% (N)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子女를 다루기가 어렵다.	72.6 (151)	7.7 (16)	38.0 (41)
직장생활 영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74.4 (154)	2.9 (6)	22.7 (24)
고생해야 할 일이다.	15.6 (31)	6.5 (13)	77.9 (115)

〈표 16〉 자녀에 대한 교육수준 희망

자녀교육희망	% (N)		
	아들	딸	
중학교까지	0.6(1)	7(1)	
고등학교까지	8.8(15)	22.8(33)	
대학이상까지	34.7(59)	27.6(40)	
자녀의 능력대로	50.0(85)	42.8(62)	
형편따라	5.9(10)	6.2(9)	

고(50.0%) 대졸이상까지 시키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아서(34.7%)〈표 16〉 높은 교육을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자녀의 능력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나타낸다. 딸의 경우에는 역시 능력대로 시키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42.8%) 다음이 대졸까지(27.6%) 그 다음 고졸까지(22.8%)의 순이나 아들보다도 딸의 교육정도의 기대가 낮아서 남녀에 대한 차별의식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2) 남편의 부역할수행에 대한 평가와 역할기대

취업모의 이중역할로 인한 역할부담 및 갈등해소의 한 방안으로서 남편의 아버지역할수행을 통한 지

〈표 17〉 남편의 부역할수행 평가와 기대

변인	구분	% (N)
남녀의 자녀에 대한 관심	많다	68.4(130)
	보통이다	23.2(44)
	없다	8.4(16)
남편의 부역할수행	잘한다	47.4(91)
	그저 그렇다	38.0(73)
	별로 못한다	14.6(28)
남편에 대한 부역할기대	자녀에게 자상했으면	31.9(52)
	자녀와 대화를 해줬으면	19.0(31)
	자녀에 엄격했으면	8.6(14)
	숙제 공부지도해줬으면	5.5(9)
	경제적 역할	5.5(9)
	가족소풍을 가줬으면	2.5(4)
	별로 없다	27.0(44)

〈표 18〉 남편의 학력에 따른 자녀에 대한 관심도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많다	56.7(17)	59.2(42)	80.8(63)	72.7(8)
그저 그렇다	30.0(9)	33.8(24)	10.3(8)	27.3(3)
별로 없다	13.3(4)	7.0(5)	69.0(7)	

$\chi^2=15.01$ df=6 P < .05

원과 남편에 대한 취업모의 역할기대를 알아보았다.

〈표 17〉 먼저 아버지역할수행의 면을 부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본 조사대상 취업모는 부가 자녀에 대해 관심이 많다(68.4%)고 인지 하지만 역할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보다 낮다(47.4%). 자녀에 대한 관심도 남편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부의 역할수행에 대한

〈표 19〉 남편의 직업에 따른 부역할평가

	% (N)					
무직	생산직	차영업	기술직	사무직	기타	
잘한다	26.7(4)	48.4(31)	50.0(10)	45.8(22)	56.3(18)	45.5(5)
그저 그렇다	13.3(2)	40.6(26)	35.0(7)	43.8(21)	37.5(12)	45.5(5)
별로 못한다	60.0(9)	10.9(7)	15.0(3)	10.4(5)	6.3(2)	9.1(1)

$\chi^2=29.81$ df=10 P < .0001

〈표 20〉 남편의 부역할수행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 (N)
아이들 돌보기	39.3(72)	31.7(58)	29.0(53)	
학습지도	54.9(89)	26.5(43)	18.5(30)	

평가는 남편직업이 사무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18〉 〈표 19〉 실제로 남편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 아이들 돌보기를 자주 하는 경우는 29.0%가 되며 자녀의 학습지도를 잘 하는 경우는 18.5% 가량 된다 〈표 20〉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첫째 자녀에게 좀더 자상했으면(31.1%), 자녀와 대화를 나누었으면(19.0%) 등이고 별로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경우도 27.0%나 된다 〈표 17〉. 대체로 본 조사대상취업모는 역할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남편의 부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도구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표현적인 역할을 보다 더 많이 수행해 주기를 기대함을 알 수 있다.

(3) 취업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저소득층 취업모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의 해결은 두 가지 면으로 접근될 수 있다. 즉 우선적으로 부모역할을 대리 지원해줄 수 있는 탁아소, 공부방, 학비보조수당 등의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부모역할수행 및 기능을 향상시켜 줄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시이다. 본 연구대상인 생산직 취업모가 절실히 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 전에 그들이 자녀를 양육, 교육하는데 있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회문제를 알아 보고 다음으로 희망하는 사회시설 및 제도를 알아 볼으로써 사회적 지원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그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사회문제는 1위가 범죄였고 2위가 성폭행, 3위가 주변의 유해환경 순이었다. 〈표 21〉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환경 자체가 이상의 문제들에 보다 더 취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그들이 바라는 사회제도 및 시설은 1위가 자녀의 학비보조 등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두번째는 공부방과 탁아소, 학교급식, 놀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생산직 취업

〈표 21〉 바라는 사회적 대책 및 시설, 제도

변 인	구 분	% (N)
자녀교육에 우려되는 사회문제	범죄	42.1(72)
	성폭행	29.2(50)
	유해환경, 탈선	23.4(40)
	과외열풍 과소비	2.9(5)
		2.3(4)
바라는 사회시설, 제도	학비보조금제	(88)*
	공부방	(64)
	탁아소	(62)
	학교급식	(51)
	놀이시설	(39)
	휴일확대	(24)

* 이하의 수치는 복수응답한 빈도임

모들이 청소년기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녀의 학자금보조가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다음으로 탁아시설 못지 않게 공부방이나 급식 문제가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V. 생산적 기혼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임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은 능력이나 취업동기 등의 개인적 차원보다는 이중노동을 극복 내지 부담해 줄 수 있는 주변환경 요건에 의하여 더욱 좌우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복지 대책은 취업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취업구조와 취업환경의 개선 그리고 가족환경과 자녀양육, 교육 지원체계의 차원으로 복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지대책 마련의 근거는 공동연구자들과 현장감독 및 직원, 응답자들과의 대면관계에서의 질적 면접자료임을 밝혀둔다.

1. 취업구조와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1) 기혼여성의 이직율이 임금,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의 요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면을 기업측에서 과감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조사 결과 대부분의

생산적 여성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10시간 15분간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가족원의 도움도 별로 못 받는 채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 상위직 취업여성과 달리 가사보조자나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극히 낮은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무리한 장시간의 노동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측되는 기혼여성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생산노동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기혼여성들은 이미 성별로 분질화된 작업장에 배치되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기능적으로 유연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미혼여성에 비하여서도 열등한 대우를 감수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순 작업, 낮은 임금, 또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견디어야 하는 곳에 기혼여성을 배치시키는 등의 성차별과 기·미혼의 차별을 제거하고 위험수당과 철저한 정기검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혼여성인 경우 미혼여성보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얼마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안정된 시기에 이르면 평생직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재교육 등을 병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동시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직과 마찬가지로 근속수당이나 승진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앞 세대와 현저히 구별되는 것이 여성 생애주기의 변화인 바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그리고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는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적 요인이 취업의 가장 큰 이유인 만큼 일시적이거나 보조적인 차원의 취업이 아니므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정부차원에서는 부인의 소득이 더이상 가계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에비군이 아닌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동시에 특히 본 논문에서 나타났듯이 자녀가 유아기나 학동기에 있는 기혼여성들의 높은 이직율을 고려하여, 직장 내 탁아소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조나 세제혜택을 통한 간

접적 지원 등의 과감한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생산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돋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잠재된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유인해 내므로써 오늘날 점차 기피해가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도 판단된다.

5) 생산적 기혼여성들의 강력한 호소 중의 하나가, 생산적 근무시간과 집안 일로 출입해야 할 관공서나 은행 근무시간의 상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산적 뿐만이 아니라 일과시간의 통제를 받고 있는 모든 맞벌이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직장 내에 우체국이나 은행출장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의 하나이겠으나 규모가 영세한 업체에는 실현시키기 어려운 일이므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고 전화나 서면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시키면 바람직할 것이다.

2. 가족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생산적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생산적에 종사하는 이들 취업 여성들은 각종 가족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가족 내의 물질적, 심리적 지원이 부족한 까닭에 이들에게 우선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 관련성이 높아진 오늘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가족문제에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장 차원에서 개설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즉 신·구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생활의 양상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한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바람직한 결혼생활과 가족관계를 도모하도록 지원해준다. 기업의 이윤을 임직원 뿐만이 아니라 하위직의 생산직에게도 환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대부분의 노동자는 가족생활의 안정과 작업능률과 관련이 있는 까닭에 이들의 가족생활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더불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상담하고 가족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직장을 통해 유포시키면 생산직 여성의 스트레스 해소책이자 이탈의 소지가 되는 '회관' 출입도 줄어들 것이다.

3)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가족을 지원해주는 각종 상담 전화와 가족 복지시설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과 함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증가 추세에 있는 가족문제에 대비하여 더욱 가족 지원시설 및 단체를 확대시켜야만 한다. 또한 사적인 영역의 가족문제는 사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고 취업여성의 불이익을 호소할 수 있는 노동문제 및 법률상담의 전담 전화까지 분화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4) 심리적인 차원에서 취업여성 자신의 진취적인 성역할 태도의 증진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철저한 직업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 성역할 체계의 유연성이 부부간에 중대되면 자녀교육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보다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5) 위와 같은 내용을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주력하여 추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의 파급효과가 가장 강력하므로 정부관계자와 가족학 전문가, 언론인, 연예인들은 T.V.나 비디오, 잡지, 신문 등의 온갖 매체를 동원, 건강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대책

생산직 취업모의 이중역할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를 향상시켜 직업생활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가족주기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1) 먼저 본조사 대상에서 유아기기족이 적게 표집되었고, 또한 표집된 중에도 유아기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이직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탁

아 시설이든 직장탁아 시설이든 탁아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

2) 조사 결과 나타난 열악한 주거환경과 취업모의 장시간에 걸친 생산노동시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내의 보다 많은 공부방의 설립이 요청된다. 시, 구, 동 단위의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물론 각종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 권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개인차원에서도 세계상의 혜택을 주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3) 생산직 취업여성들의 생활시간구조를 고려할 때 각급 학교에서의 급식제도의 시행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를 출근시간이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에 적용하여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생산직 여성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고 더불어 저소득층 취업모자녀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4) 자녀를 어느 정도 기르고 난 뒤 재취업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고용기업체를 통한 자녀학비 보조 수당의 지급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생산직에 비하면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국공사립학교 교원이나 은행원들이 오히려 자녀학비 보조를 직장을 통해 받는 현실은, 우리사회의 부의 분배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하나이다. 더구나 조사 결과 생산직 취업여성 중에는 모자가족의 여성가구주와 경제적으로 남편을 부양하는 여성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생산직여성들의 자녀학비 보조는 현존의 생활보호 대상가족의 자녀나 실업계 진학생의 학비보조면제 확대와 더불어 적극 시행해 나가야만 하는 현안문제이다. 그러므로 기업과 정부는 서로 떠넘기지 말고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생산직 취업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그들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을 통한 프로그램의 실시나 공부방을 통한 교사, 부모 접촉과 상담에 의한 접근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6)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범죄, 성폭행, 유해한 주변환경, 탈선을 예방,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성인생

활문화와 노동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생산적 기혼여성들의 노동형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의 직업만족도와 이에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고 또한 가사노동시간과 생산노동시간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결혼생활의 적응과 갈등 그리고 청소년기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고찰하여 생산적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이에 대응하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생산적 기혼여성들의 첫 취업연령은 28.8세로, 응답자의 55.4%가 결혼 전 취업경험이 없었다. 이들의 취업형태는 높은 이직율과 빈번한 직업이동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직이유로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높고, 그 밖에 임금이나 복지시설 등의 작업조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의 합병이나 축소, 부도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도 포함되었다. 직업이동횟수는 매우 높아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가 30.5%인데 반하여 10년 이상인 경우는 14.7%에 불과하였다. 직업 이동 유형은 대부분 동일직종 내의 수평이동을 보였고, 응답자의 70.7%가 지역적으로 대구시내의 지역 내 이동유형을 보였다.

생산적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는 부인소득의 가계 소득 기여비율과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가사분담에 대한 주부의 만족도 등의 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역할 태도와 취업의식을 살펴보았는데, 기혼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결혼 전 취업여부와 관계는 있었으나 취업의식과 직업만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구조적 요인으로는 임금, 휴가, 복지,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 등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직장 내 성별분위이 이미 칠저히 이루어진 작업환경 속에서 성차별 요인은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생산적 기혼여성의 직업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어서 가사노동에 대한 심리적 제약을 분석한 결

과 생산적 기혼여성들은 생산노동시간이 길고 동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실제 가사노동시간도 직장관련변수 중 작업 시간 및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수록 짧았다. 즉 생산적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제약은 가정생활변수의 영향보다 직장관련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취업은 한 가정의 생존전략 상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정은 그것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가정생활 변수는 가사노동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 생산적 기혼여성 가계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소득액과 직결되는 생산노동시간을 기혼여성 스스로가 감소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의 가사노동시간 제약을 완화시켜 줄 외부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산적 기혼여성들의 결혼생활 적응을 알아보고자 부부간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부인들이 남편에 비하여 더 적극적이었으며, 대화부재의 가족 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저지 않았다. 의사결정 양상은 부부 중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내외의 성별구분에 의한 자율형에 비하여,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일치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결정에의 높은 참여가 반드시 가족 내 발언권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생산적 기혼여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가족생활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나 건강문제보다는 주로 경제적 요인과 정서적 불안정 또는 사회부적응에 관련된 남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었다. 그런데 부인들은 외고, 노름, 숨버릇 등과 같이 그 원인이 남편의 개인적 비행인 경우에는 부부싸움으로 그 갈등을 노출시키는 반면에 남편의 가사 비협조, 권위적인 태도 그리고 직장불안정이나 경제적 문제와 같이 사회구조적 차원과 관련되는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체념의 형태로 갈등을 남편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문제를 터놓고 의논할 대상자도 없는 환경 속에서 서로 냉전하거나 여성인 자신이 참고 지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본연구의 생산적 취업모는 부모의 권위가 약화되어 가는 청소년자녀 사기에 자녀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녀에 적절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취업모는 자신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학업 성취 기대와 교육희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자신의 역할 수행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남편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역할기대의 수준 또한 높지 않으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수행보다는 자녀에 대한 자상함, 대화 등의 온정적 태도를 기대하는 경향이다. 그리하여 취업모가 절실히 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족주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청소년기 가족의 경우 자녀의 학보보조등 경제적 지원이 일차적이었으며 공부방, 학교급식 등의 순이고, 유아기 가족은 압도적으로 탁아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취업모는 최근의 범죄나 성폭행의 증가가 자녀교육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의식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생산적 기혼여성들은 자녀양육, 교육과 가사노동의 재생산노동은 물론 도구적 역할인 생산 노동까지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차별적이고 열악한 작업장을 자주 옮겨 다니지만, 소득 때문에 작업시간을 줄이기도 어렵다. 자신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그만두지 못한다. 또한 남편의 사적인 비행에는 갈등을 터뜨리지만, 아버지역할 수행의 기대수준도 높지 않고, 경제적 무능이나 가부장적 태도에도 문제의식에 그칠 뿐 스스로 참고 적응한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감수하고, 자녀와 남편에게 배려하는 이들을 위한 복지 대책은 작업구조, 작업환경의 개선과 가족환경, 자녀양육 및 교육의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다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원이 결핍된 취업여성들을 지원해주는 정부 차원의 복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부족 특히 우리나라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실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출발한 만큼 광범위한 규모에 비하여 체계적인 서술이 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생산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구

조상 낮과 밤 그 어느 때도 면접이 용이하지 못했던 까닭에 충분한 표집을 하지 못한 점 역시 제한점으로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직접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로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가족생활실태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가설형성과 이론생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더불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거주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에 기반하여 제시한 복지대책방향은 정책입안의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강문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와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상관적 일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0호, 1981.
- 2) 강영자, “어머니의 직업이 자녀의 창의성 및 성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84.
- 3) 강인순, “마산·창원의 노동자 계급의 가족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1990.
- 4) 김경동, 이온죽,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 박영사, 1986.
- 5) 김미하, “노동자가족의 성별분업”, 여성한국사회 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1990.
- 6) 김선영,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불안정성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1989.
- 7) 김성천, “한국 가족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 연구 6,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5.
- 8) 김성천, “가족복지 기본체계 구성을 위한 일연구”, 사회복지 통권 101호, 1989.
- 9) 김수환, “빈민가족 치료를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대구대 박사논문 1986.
- 10) 김순옥,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대석사학위논문, 1972.
- 11) 김애령, “노동자가족의 생계유지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87.
- 12) 김익기·장세훈, “도시빈민의 내부분화와 빈곤의 재생산과정”, 한국사회학 21, 겨울호, 1987.

- 13) 김재근, "맞벌이 가정 아동과 홀벌이 가정 아동의 제 심리적 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 맞벌이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14) 김정자, "아동보육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6권 2호, 1988, 34-71.
- 15) 김혜경·신현옥,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의 상태와 문제", 여성과 사회, 창간호 : 1990, 282-318.
- 16) 김혜장, "중소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대학원석사논문, 1987.
- 17) 박미령, "가족문제", 대한가정학회,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3』, 아동학, 가족학, 교문사, 1990.
- 18) 박세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1987.
- 19) 박충선와 5인,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발표요지, 1991.
- 20) 변화순, 영세지역 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권 3호, 1989, 5-42.
- 21) 변화순, "한국 가족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 여성연구, 제7권 1호, 1989.
- 22) 변화순,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권 4호, 1990.
- 23)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사회와 가족, 1986.
- 24) 안선영,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석사학위논문, 1987.
- 25) 안은자, "여학생을 통해 본 취업모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찰", 서울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3.
- 26) 양옥남, "도시 비공식부문의 가족생활실태연구", 강남사회복지학교 논문집 17, 1987.
- 27) 옥선화, "저소득층가족의 부부관계", 한국가족학연구회 발표요지, 1990.
- 28) 윤복자,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1975, 151-169.
- 29) 이각범, "산업발전과 노동시장 변동",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1983.
- 30) 이동원,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7권, 1976.
- 31) 이미영, "기혼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86.
- 32)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 방안 ——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89.
- 33) 이연숙와 3인,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1991.
- 34) 이용숙의 2인,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 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서, 1988.
- 35)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984, 103-131.
- 36) 이정우·김규원, "저소득층 취업주부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성남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4(4), 1986.
- 37) 정진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 여성 연구, 9권 3호, 1991.
- 38) 조 은, 산업화와 신가부장제,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1983.
- 39) 조 형외 2인, 한국의 도시여성과 직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2.
- 40) 조혜정, "부부권력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 / 비취업 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Vol 22, 한국사회학회, 1981.
- 41)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8.
- 42) 조규련, "맞벌이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세미나 발표요지, 1991.
- 43) 팽경인, "노동자가족의 노동력 재생산 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8.
- 44) 한경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89, 1-13.
- 45) 한국갤럽연구소, 한국주부의 생활과 의식구조, 1987.
- 46)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한국사회사 연구회, 문학과 지성, 1990.
- 47)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1989.

- 48) 한국여성개발원, 생산적 노동여성의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 1984.
- 49)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1986.
- 50)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1987.
- 51) 한남제, “직업부부의 가족문제”, 경북大 논문집 16, 1972.
- 52) 한창문,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학업성적 및 인성 특성과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 「교육논총」 제2집, 1982.
- 53) 흥기용, 도시빈곤의 실태와 정책, 단대출판부, 1986.
- 54) 홍승아, “여성노동의 사회적 존재형태 및 그 성격에 대한 연구—— 생산적 기혼여성 노동자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대석사논문, 1987.
- 55) Abdel-Ghany, M. & S. Y. Nickols, “Husband / 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ERJ 12(2), 1983.
- 56) Blood, R. O. & R. M. Wolfe, Husbands &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Y. : The Free Press, 1960.
- 57) Gerson, K., Hard Choices, California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 58) Haftstorm, J.I. & V.R. Schram, “Household production: conceptual model for time-use study in USA and Japan”, J.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8 : 1984, 283-292.
- 59) Haftstorm, J. I. & V. R. Schram,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ERJ. 11(3) : 1983, 245-256.
- 60) Haftstorm, J. I. & V. R. Schram, “Family resource related to wife's time inputs to housework”, J.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0(3), 1986.
- 61) Hoffman, L. W., “Effects on the Child.” In L. W. Hoffman and F. I. Nye(eds.)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 Rand McNally, 1974.
- 62) Huber, J. & G. Spitz, “Wives Employment, Household Behaviors & Sex-role Attitudes,” Social Forces, Vol 60, 1981.
- 63) Kamerman, S. B. & A. J. Kahn, Family Policy, Government &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Y.: Columbia Univ. Press, 1978.
- 64) Kauppinen-Toropainen, K., Kandolin, I. and Mutanen, P., “Job Satisfaction and Work-related Exhaustion in Male and Female Worker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Vol. 4, 1983, 193-207.
- 65) Koch, J. & Rhodes, S., “Predictors of Turnover of Female Factory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8, 1981, 145-161.
- 66) Nye, F. I., “Effects on the mother.” in L. W. Hoffman and F. I. Nye (eds.) Working Mothers. San Francisco : 1974.
- 67) Park, C., Sex-role Attitudes and Employment Status as Predictors of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Ph. D. Thesis, Univ. of Pittsburgh, 1987.
- 68) Rexroat, C., “Women's work expectations and labor market experience in early and middle family life cycle st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7-1, 1985, 131-154.
- 69) Spitz, G., “Women Employment & Family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 50, 1988.
- 70) Tilly, L. A. & J. W. Scott, Women, Work, and Famil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8.
- 71) Voydanoff, P., Work & Family Lif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987.
- 72) Zimmerman, S. L., Understanding Family Policy, N.Y. : Beverly Hills, 1988.